

전북현대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 FC아트드림 2기 힘찬 출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젝트 'FC아트드림' 2기 발대식이 지난 5일 열렸다. 전북현대 클럽하우스에서 실시된 'FC아트드림' 발대식에는 아동 100여명 및 전북현대의 수장 최강희 감독과 선수단, 프로그램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실시됐다.

이날 발대식은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투어, 선수단 훈련 참관, 프로선수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FC아트드림'은 전북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축구에 재능이 있으나 저소득으로 인해 재능 개발의 기회를 놓치는 아동들을 위해 (사)희망나눔 최강희축구(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창의인재 육성 프로젝트다.

'FC아트드림'에 참여하는 2기 아동들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전북현대 유스팀 그린스쿨 및 (사)희망나눔 최강희축구의 전문 코치진과 함께 주회 훈련할 예정이며, 정규 훈련 이외에도 스포츠 기자, 에이전트, 심판 등 축구 관련 직종 체험, 최강희 감독 등 축구 명사 특강, F리그 클래식 경기 관람 및 에스코트 키즈 참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고창군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 성료

제17회 고창군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11개 클럽 30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대회 결과 연립대별 우승은 30대혼북에서 새모양클럽(김영환·정규남), 40대에서 새모양클럽(김지설·김안순), 50대에서 고창클럽(김정관·최은희)이 각각 차지했으며, 30대 남자복식 고창클럽(김수용·박규철), 30대 여자복식 다모아클럽(김영희·김아람), 40대 남자복식 고창클럽(김상철·김태형)이 차지했다.

한편 대회 개최와 함께 열린 화상이·추진식에서 제8대 유철희 회장이 이임하고 제9대 박래필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박우정 고창군수와 한동희 전라북도 배드민턴연합회장 등 내빈과 시군 배드민턴 동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래필 신임회장은 "동호인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면서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 배드민턴연합회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에서도 생활스포츠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FIFA U-20 월드컵조직위, 창립총회 개최

'제17차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 (이하 U-20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U-20 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설립 취지보고, 정관제정, 위원선임, 임원선임, 대회 개최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대은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은 "개막전을 포함한 9경기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며 "전 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오는 8월2일부터 9일까지 FIFA 실사단이 내한하여 대회 개최도시의 시설준비 제반 사항에 대해 점검이 계획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전주에서 조직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우리은행 양지희, 생애 첫 MVP 등극

팀 정규리그 4연패 견인 첼시 리, 6개부분수상 기염

양지희(32·우리은행)가 생애 처음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양지희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총 93표 중 36표를 받아 MVP를 수상했다.

생애 첫 수상이다. 팀 동료 임영희(34표)를 2표 차이로 따돌렸다. 박혜진은 12표를 받았다.

국가대표 센터 양지희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전 경기(35경기)에 출전해 평균 31분 47초를 소화하며 10.31점 6.1리바운드 2.7어시스트 1.4블록슛을 기록,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4연패를 이끌었다.

광주수피아여고를 졸업한 양지희는 2003년 신세계에 입단해 올해로 프로 14년차다. 185cm의 큰 신장으로 힘과 페인트 존에서의 발놀림이 좋다. 정선민(현 하나은행 코치), 신정자(신한은행)의 계보를 잇는 여자농구 대표 빅맨이다.



7일 오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2016 KDB생명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 양지희와 신인상 첼시 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은 93표 중 90표를 얻은 첼시 리(KEB하나은행)가 받았다. 경기당 15.17점 10.4리바운드로 평균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하나은행의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다. 국내 선수 중 득점, 리바운드, 2점슛 성공률에서 1위에 올랐다. 조부모의 국적이 한국으로 알려진 첼시 리는 혼혈 자격으로 이번 시즌에 데뷔했다. 첼시 리는 신인상 외에도 베스트, 윤덕주상을 받았고, 기록 부

문에서도 득점상 2점 야투상 리바운드상 등 총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4연패를 이끈 위성우 감독은 4년 연속으로 지도상을 받았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해 4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승에 일조한 셰키나 스트리켄(우리은행)은 외국인선수상을 받았다. 이번 시즌 평균 18.34점 6.7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이경은(KDB생명)~박혜진~임영희~셰키나 스트리켄(이상 우리은행)~첼시 리(KEB하나은행)는 정규리그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기량발전상(MIP)은 신한은행의 가드 윤미지가 받았고, 과주영(신한은행)은 식스우먼상을 수상했다.

또 KIA 스포츠(삼성생명)는 우수수비수상을 한채진(KDB생명)은 모범선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심판상은 문석진, 프랜트상은 청주 KB국민은행의 뒤로 돌아갔다.

이날 시상식으로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의 일정은 모두 끝났다. 2위 하나은행과 3위 국민은행의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는 10일부터 시작한다.

/김민근기자

평창동계올림픽 1차 세계방송사회의 오늘 개막

전 세계 올림픽 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1차 세계방송사회의(WBM)'가 오늘 개막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와 조직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방송사회의가 오늘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방송사회의에는 미국 NBC와 영국 BBC, 중국 CCTV 등 전 세계 주요 올림픽 방송권자인 12개사를 비롯해 주관방송사인 OBS,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직위와 OBS는 회의를 통해 올림픽 방송권자들에게 방송 시설과 서비스 등의 대회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방송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열린 세계방송사 브리핑과 2017년 개최될 2차 세계방송사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분회의와 방송권자 개별 미팅 등은 물론 국제방송센터(IBC) 건설 현장과 올림픽 경기장 투어 등도 함께 진행된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